



전라지역

느티나무

내소사 일주문 할아버지 당산의 느티나무

✳	지정번호	부안-9-15-7-1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지정년도	1982		석포리 산 84-1
	관리기관	부안		35° 36' 43.87" N
	수령	351년		126° 35' 21.96" E
	수고	25m		
	흉고둘레	5.6m		

할아버지 당산나무(당산목) 구실을 하는 보호수(부안-9-15-7-1) 느티나무는 내소사로 들어가는 일주문 앞에서 자라고 있다. 내소사 느티나무는 경내에 있는 고목의 보호수(예전에 이미 기록 소개)가 할머니 당산이고, 일주문에 있는 것이 할아버지 당산이지만 그 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51년으로 추정되나, 여러 자료는 500년 또는 70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25m, 가슴높이둘레는 56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3.5m 정도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여 다시 가지 줄기를 내어 잎을 펼치고 있다. 줄기는 썩거나 충전재 처리가 거의 없이 생장이 왕성한 편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당산제와 관련이 있다. 느티나무는 '수목대신'으로 축원하는 나무이며, 사찰을 지키는 나무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매년 정월에 진행되는 내소사 당산제는 오랫동안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불교와 민속신앙이 어우러진 행사이며, 토속신앙을 통하여 사찰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1980년 명맥이 끊어진 것을 2009년부터 내소사와 마을 주민들이 전통을 되살리고 있다. 이 당산제의 중요한 의미는 오랜 세월을 거쳐 불교신앙과 민속신앙이 만나 탄생한 민속문화인 동시에 마을 공동체 의식이다. 자연합일을 통하여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바라던 소박한 마을신앙과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불교정신이 당산제로 결합한 것이다. 한편, 내소사의 주소가 여러 개가 있어 느티나무 보호수를 찾아가기 위하여 여러 주소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느티나무 당산나무(당산목)도 일주문과 경내의 것에 대한 할아버지 당산과 할머니 당산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혼동이 있을 수 있다.